



# 대지 미술의 환경미학적 의미 연구

: 앤디 골드워시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esthetic Meaning of Land Art  
: Focusing on Andy Goldsworthy,

Choi Jungsoo the doctor's cours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I 1.1 연구배경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복제기술 등의 첨단 과학기술은 빠르고 더 편리한 현대인의 삶을 선사했다. 반면 인간관계는 축소되고 개인주의 패턴과 이기심은 강화되었으며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본고는 환경을 재인식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연에 작품을 조각하는 앤디 골드워시 (Andy Goldsworthy, 1956~)를 주목하였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일부로 생태계 사이클에 따라 분해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연기(緣起)'란 모든 사물의 이치가 맞물려 생성, 변화, 소멸, 순환되는 현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는 원리에 의한다.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은 사물과 그것이 놓이는 장소와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고 동양사상인 '연기'와 같은 맥락의 창작원리를 지닌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현대인의 사고체계를 자연회복의 대안과 관계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 I 1.2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연구 목적은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을 연기(緣起)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서양 예술과 동양의 사상을 연결하고 환경 미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백승경 2003; 오경혜 2005; 이윤희 2005; 조영직 2009; 양은지·김개천 2012; 맹옥재 2015; 전유미 배정민 2015; 유현주 2016; 배정민 2016; 손영진 2017)는 생태공간, 디자인, 건축, 사고체계에 대해 고찰했고 대지미술에 대한 연구로는 송지은(2007)의 「앤디 골드워시(Andy Goldsworthy, 1956~)의 '나무(Wood)' 작품 연구」, 손유리(2012)의 「대지 미술작품에 내재된 생태주의적 특징 분석 연구」, 박민혜(2016). 「리차드 롱 작업에 나타난 자연관」 등이 있다. 본고는 앤디 골드워시 작품의 바탕에 흐르는 동양 사상에 대한 이해와 윤리에 바탕을 두는 '미(美)로 해석했다. 이러한 논의는 서양의 대지미술과 동양사상을 연결하고 환경과 인간의 가치를 재고하는 시각으로 인류 보편적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 II. 본론 대지미술의 이해

대지 미술은 작가가 어떤 장소에 개입하여 사건과 의미를 구현함으로써 그 장소를 새롭게 조형하는 예술로 랜드아트(land art)라고도 불린다. 대지 미술은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예술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대상으로서 장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단순함과 간결함을 예술의 본질로 규명하려는 미니멀리즘과 맥을 같이하여 출발했다. 자본주의로 버려진 장소를 가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장소의 재생과 설치작업으로 이루어져 그 형식은 대자연의 소재로 예술적 모험을 사진이 증언하고 이미지- 증거 그 자체로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한다. (이경률 2007:44) 대지 미술은 환경과 교감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 장소를 재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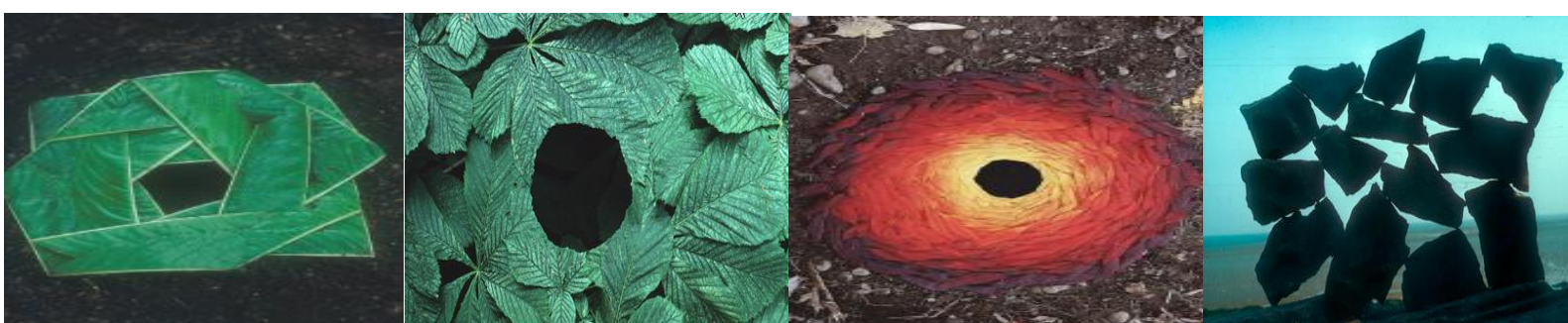
Robert Smithson Christo Javachef Richard Long

## III.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분석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앤디 골드워시는 잎, 가지, 줄기, 가지 등을 엮고 꿰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나무' 작품 시기는 자연의 회복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골드워시의 작품은 자연환경이라는 지리적 실재의 위치와 결합하여 장소와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적 영역을 만든다. (할 포스터 2003:88) 자연에 설치된 작품은 유기적 관계로 존재하고 소멸하는데 이것이 동양의 '연기'의 원리와 유사하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유기적 관계로 맞물려 '인연생기' (因緣生起) 원리에 따라 인간의 삶은 모든 현상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그의 작품은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멍, 나선형, 아치, 라인, 볼의 형태로 나뉜다.

### 3.1 구멍(Hole) 형태

'생명의 에너지'는 구멍을 통해 확산되어 나간다. 나뭇잎, 진흙, 나뭇가지, 돌 등의 자연물을 미술재료로 삼아 환경보호를 추구한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자연은 소재인 동시에 작품의 주체이며 작가는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걷어내어 조형물과 자연의 일체를 추구한다.



1977 1986 1986 1978

### 3.2 나선형(螺旋形)과 아치 형태

나선형(螺旋形) 구조는 중남미, 중동의 고대유적과 건축물에서 발견되는데 소용돌이무늬의 구조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색이 변하며 자기 조직화 하고 우주의 이해로 적용된다. (전혜숙 1997:67) 그는 균열 된 돌들을 모아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구성하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1985 1987 1986 1982

고정에 필요한 핀은 자연에서 채취한 가시를 사용했다. 시간이 경과 하면 물, 바람, 온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 변형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미술은 반드시 작품과 둘러싼 장소에 존재해야 하는 창작 법칙을 따른다. 자연의 재료 하나하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유기적이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구조물은 온도의 마찰력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관람자는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신비감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한다. 원추형, 아치형, 원형으로 나타난 축척 작업은 쌓는 과정을 통해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나타낸다. 열기와 물을 이용해 눈과 얼음 조각을 붙인 새로운 자연물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과 바람에 의해 변형되 다시 땅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겪는다. 작품은 유한과 공존을 상징하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이해와 노력을 요구한다.

## 3.3 라인(Line)과 볼(B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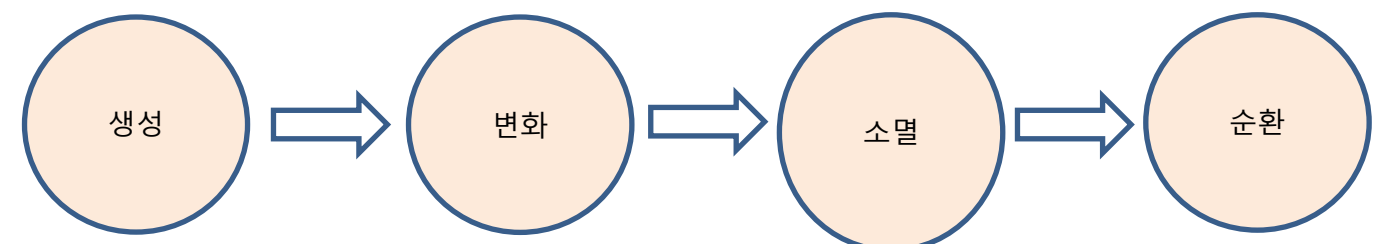
바위 사이에 끼인 얼음판(60 x 60 cm. 23.6 x 23.6 in.)은 느릅나무 잎들이 구불구불 표현된 작품으로 아슬아슬한 큰 바위 사이에 위치한다. 작가는 자연을 재료로 인공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의 색을 사용하고 그것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눈 위에 그림자 라인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관을 발견하고자 했다.



2005 1985 1985

원형으로 얼음 조각을 겹겹이 쌓아 올려 제작한 볼은 물가에 놓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에 녹으면 흡수되어 사라진다. 앤디 골드워시의 작업 공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예술공간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의 작품은 자연, 작품, 사람을 연결하며 관람객의 환경미학적 사고를 확장 시킨다. 작품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동양에서의 '미(美)는 도덕과 윤리의 '선(善)을 예술에 적용하여 환경을 주목 한다. (최정수 2021:1009) 자연과 협응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체험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인지하여 사고를 확장시킨다. 그의 작품은 환경과 인간의 가치를 재고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 VI. 결론 앤디 골드워시 작품의 환경미학의 가치



앤디 골드워시는 자연에 작품을 조각하여 생태계의 사이클에 따라 변화, 순환, 분해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동양의 '인연생기' 이치는 작품 과정과 유사하다. 골드워시의 작품 분석 결과 구멍, 나선형, 아치, 라인 볼의 형태로 환경, 조각,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추구했다. 자연과 예술작품의 공존은 인간에게 환경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와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 작품의 의의는 첫째, 동양사상과 대지미술을 연결한다. 둘째, 윤리가 반영된 '미(美)를 함의한다. 셋째, 자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환경의식을 확장시킨다. 넷째, 성찰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추구한다. 자연의 공간에 조각을 설치함으로써 다변적인 새 공간을 구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환경 보호의 경각심과 공존의 의식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환경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며 미래의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환경과 작품과 인간이라는 관계를 키워드로 생명과 삶의 가치에 주목하는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을 제시하여 환경과 인간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동양사상과 현대미술을 연결하는 매체를 통해 환경과 문화가 통합되는 새로운 담론으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이경률(2007). *현대미술 사진과 기억*, 2007, 44쪽.  
전혜숙 (1997). "대지미술에 나타난 시간 개념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7, 63-85.  
최정수(2021). '인'의 측면에서 본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작품 연구. *문화와 융합* 43(3), 1009.  
할 포스터, 이영옥 역(2003). *실재의 귀환*, 경성대학교 출판부, 540쪽.  
Andy Goldsworthy(1990). *Andy Goldsworthy: A Collaboration With Nature*, New York: Harry N. Abrams, 1990, 2쪽.  
A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in print on June 7, 2015, Section AR, Page 1 of the New York edition with the headline: "What's the Big Idea?" Order Reprints Today's Paper.  
Blandy, D&Hoffman, E(1993). *Toward an art education of place*, Studies in Art Education, 35(1), 22-33.